

「제 3세대형」

대두 유래 콘크리트 거푸집 박리제

소이테라스



大豆で照らす明るい未来

<販売元>

埼玉糧穀株式会社 〒350-1133

埼玉県川越市砂68-1

TEL: 049-242-6456

사람과 지구에 착한 선택을

환경에도, 사람에게도, 그리고 미래에도,

소이테라스는 대두유를 베이스로 한 100% 식물 유래의 부드러움으로 만들어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3세대형 식물성 콘크리트 거푸집 박리제」입니다. 환경 보호가 중요시되는 요즘, 대두 유래 성분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더불어 사용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입니다.

* 식물성 박리제, 지금까지의 발전 과정

1세대 : 건강 피해가 없는 수준 (2014년 판매 시작)

2세대 : 화장품 수준의 유화제 사용 (2019년 판매 시작)

3세대 : 식품 수준의 유화제 사용 (2025년 판매 개시)

소이테라스 특징	
원재료	대두
냄새	자극적인 냄새 거의 없음
인체에 대한 영향	천연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영향 없음
작업시 보호 장비	맨손으로 작업 가능/고글, 마스크 불필요
화기 엄격 표시	불필요(인화점 304℃) 인화점이 250℃이하일 경우 표시 의무 있음
환경 부담	생분해성이 뛰어나 경감 효과 큼
박리 효과	초기 박리 효과 있음
보관	원액 그대로일 경우 장기 보존 가능
사용 가능 형틀	철 형틀, 목 형틀, 수지 우레탄 형틀, 발포 스티로폼 형틀, 알루미늄 형틀 등
방청	동판 형틀 사용시 광물유계 박리제에 비해 녹 발생이 적음

소이테라스 작업성, 경제성 강점

기존의 희석형 식물성 박리제는 단시간에 분리되어버리는 특성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이테라스는 유화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놀라운 유화력을 실현하였습니다.

[분리 시간 비교 테스트]



안전성

소이테라스는 식품 기준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합니다.
눈, 코, 목을 자극하는 냄새도 거의 없고, 의류에 냄새가 배지 않아 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이테라스는 위험 평가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후기】



30代作業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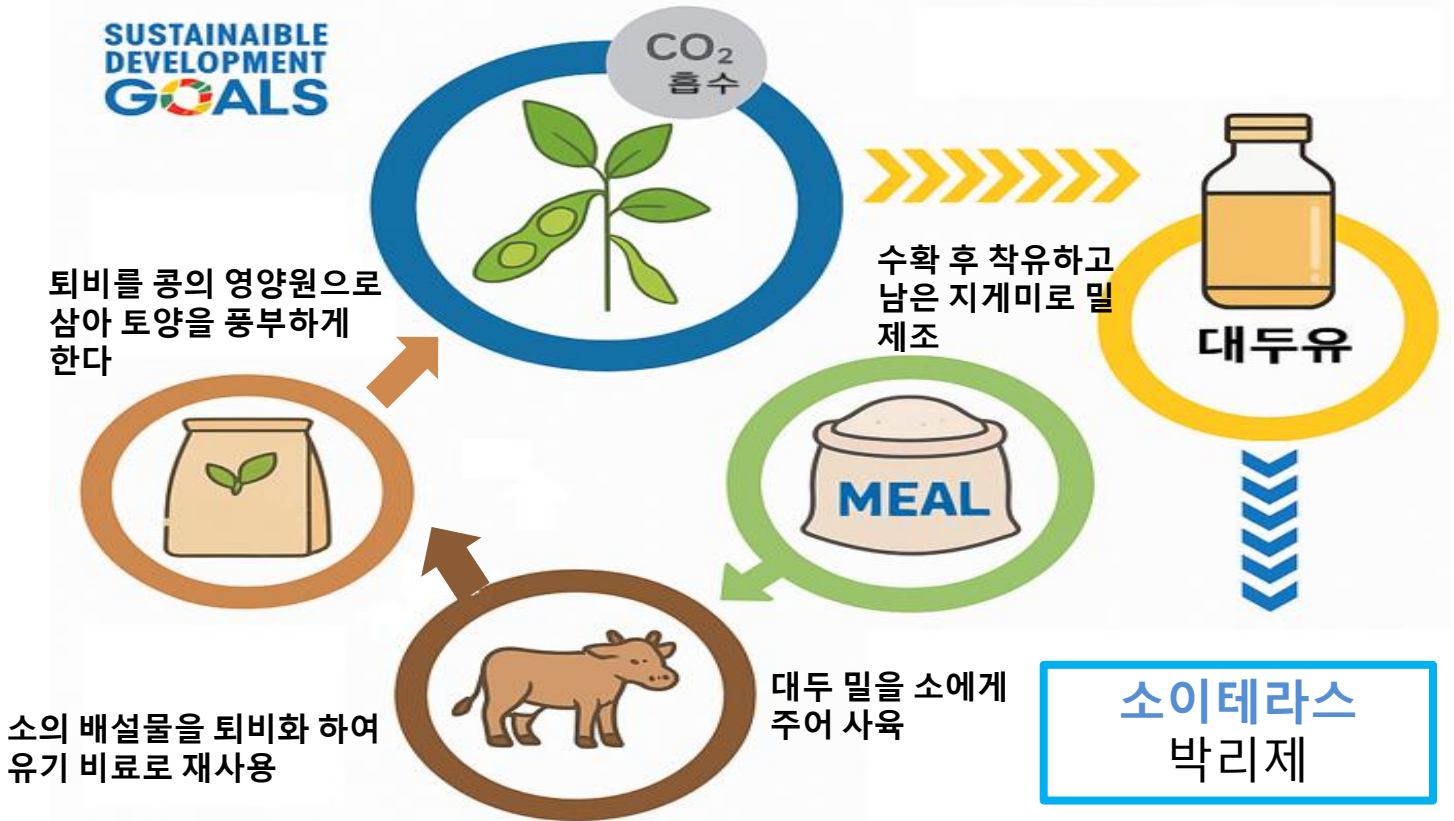
광물계 박리제를 사용할 때는 작업복에서 냄새가 다른 세탁물에 배어 따로 세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이테라스는 냄새가 배지 않기 때문에 함께 세탁이 가능하고, 번거로움도 줄어들어 가족들로부터도 매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성

물로 6~9배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매우 경제적이며, 소량으로 운반해도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어 운송 비용도 절감됩니다.

소이테라스의 환경에 대한 강점

환경 순환 사이클



시험에 의한 환경 배려와 방청 효과의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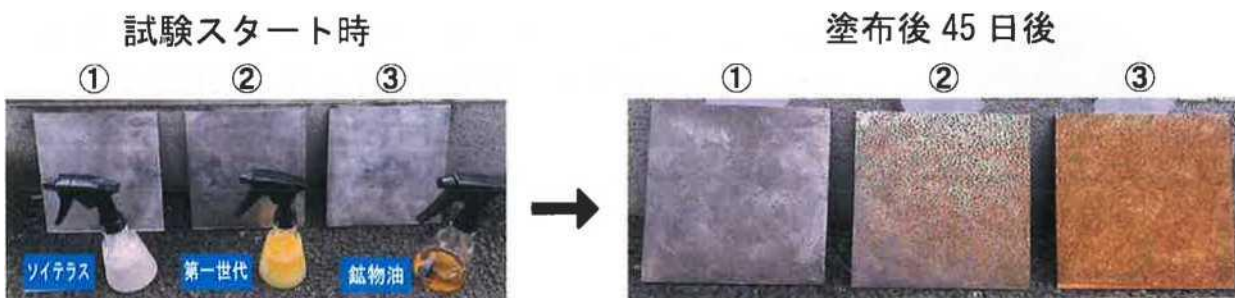
환경배려시험

남방송사리를 소이테라스와 탈염소수를 섞은 수조에 넣어도 비정상적인 외관 및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96시간 안에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미나미송사리 급성 독성 시험 주화테크노서비스(주))



방청 시험 (야외 노출 실험) ※ 장소: 사이타마현 카와고에서

전체 표면의 산화를 샌더로 제거한 후, 소이테라스 / 1세대 제품 / 광물유계 제품 세 종류를 각각 도포한 뒤, 야외 노출 상태로 경과 관찰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아래 사진과 같이, 1세대 및 광물유계 제품에 비해 변화가 적어 소이테라스의 방청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심·안전한 직장환경을 지향하며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2024년~2026년 시행)】

후생노동성은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을 통해, 모든 유해성과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리스크 평가 및 정보 제공(SDS·라벨)을 의무화 및 강화했습니다.

광물유계(석유계) 박리제에는 인화성, 피부 자극성, 발암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개정된 노동안전위생법 적용 대상이 되어, 법적 의무를 따르게 됩니다.

Point

1. 라벨 및 SDS 대상 물질이 대폭 증가
→ 2026년 4월부터 약 850종의 화학물질이 대상에 포함됨
2. 화학물질 관리자 및 보호구 착용 관리 책임자 선임 의무화
3. 청소, 세척, 유지보수 등 제조업 이외의 현장에서도 주의 필요

화학 물질에 의한 노동 재해 예

△ 중독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 일산화탄소, 기타 미 규제 물질 등...

△ 눈이나 피부에 대한 손상 (화학 화상 등)

알칼리, 산, 유기용제, 기타 미 규제 물질 등...

△ 지연성 질병 (암 등)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물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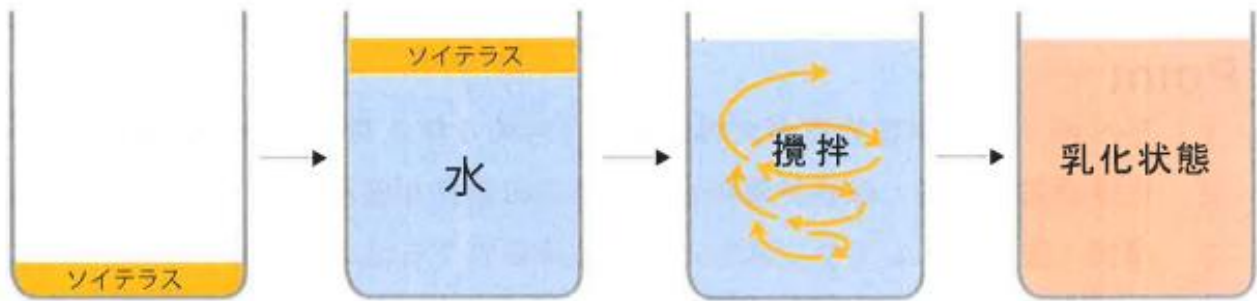
· 소이 테라스는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노동안전 위생법에 저촉되지 않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를 유발할 위험도 없습니다.

희석액 만드는 방법

소이 테라스는 원액을 수돗물로 6~9배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소이 테라스를 공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경우,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 손으로 흔들어 사용하거나, 공장 등에서는 유화 장치의 제안도 가능합니다.



도포 방법

이미지와 같은 분무기를 사용한 도포를 추천합니다.

거푸집 전체에 분무한 후, 걸레나 대걸레 등으로 고르게 펴서 닦아 주세요.

사용 직전에도 4~5회 정도 흔들어 주시면 마무리시 얼룩이 줄어듭니다.



※イメージ画像

콘크리트 제품 마감 예시

